

상담자 발달과 관련 요인에 대한 국내 연구동향 및 상관관계 메타분석

정 문 주

조 한 익*

한양대학교

본 연구는 국내에서 발표된 상담자 발달과 관련한 연구들의 경향을 탐색하여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상담자 발달과 관련된 요인의 상관관계 효과크기를 메타분석을 통해 체계적으로 탐색해 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16년 5월까지 국내에서 발표된 학술지를 중심으로 상담자 발달에 대한 연구물 56편을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여 연구 동향을 분석하고, 그중 11편을 메타분석 통해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첫 번째, 상담자 발달과 관련된 연구는 양적 연구, 질적 연구 모두 꾸준히 증가되었다. 두 번째, 연구대상별로 살펴보면 개인 상담자 발달단계에 대한 연구가 집단 상담자에 대한 연구보다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성인 대상 상담자의 발달단계에 대한 연구 논문이 아동·청소년 대상 상담자 발달에 관한 연구보다 더 많았다. 세 번째, 상담자 발달과 관련한 논문들의 전반적인 주제는 상담자 발달 단계의 특성, 슈퍼비전에 있어서 숙련 슈퍼바이저의 지도에 따른 슈퍼바이저의 발달단계별 특성, 초심 슈퍼바이저의 발달 단계별 특성들이 주를 이루었다. 다음으로 실증적 연구를 분석한 메타분석의 결과로는, 상담자 발달 하위요인과 관련 변인들 간의 관계에 있어서 사례이해, 알아차리기, 상담계획, 상담대화 기술, 인간적 태도 순의 효과크기를 나타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상담자 발달 연구 경향을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연구의 시사점과 제한점, 후속연구에 대한 제언을 논의하였다.

주제어 : 상담자 발달, 동향 분석, 메타분석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조한익 / 한양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 서울특별시 성동구 왕십리로 222
E-mail: hanikjo65@gmail.com

서론

상담 및 심리치료분야가 국내에 들어와 자리를 잡은 지 반세기가 넘었다. 상담 및 심리치료 도입 초창기에 심리적 어려움을 가진 사람들은 여러 가지 현실적인 이유로 상담 센터를 찾는 경우가 많지는 않았다(왕윤정, 서영석, 2015). 그러나 최근에는 보다 더 적극적으로 자신의 심리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전문적인 상담을 찾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다(이재창, 1996). 상담 및 심리치료에 대한 사람들의 욕구 증가는 필연적으로 상담센터와 상담자의 양적 팽창을 가속화하였다. 그러나 사람들의 욕구에 편향하여 기준 없이 급속하게 양적 증가한 상담 및 심리치료 분야는 결국 일부의 상담자 전문성 저하의 문제가 야기되었다(이문희, 2011; 이재창, 1996).

상담자의 전문성 저하는 상담효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는 상담자 자체가 상담 도구이기 때문에 상담자가 어떠한 자질을 갖추었느냐에 따라 같은 상담의 기법을 적용하더라도 내담자에게 전혀 다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김계현, 1992; 김춘경 외, 2010; Weatherford, Brooks, & Allred, 2016). 따라서 역기능적이고 자질을 갖추지 못한 상담자의 경우, 같은 상담기법을 내담자에게 적용하더라도 잘 기능하는 상담자와 비교해보면 상담효과가 부정적일뿐 아니라 상담자 자신에게도 좋지 못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한다(Rønnestad & Skovholt, 1992). 또한 Skovholt와 Rønnestad(1992)는 상담자 발달에 관한 연구에 있어서 상담자의 거짓된 발달이 존재할 수도 있으며 이를 ‘위장된 발달’이라고 설명하였다. 이 ‘위장된 발달’은 처음에는 상담 회기에 문제가 되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장기화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드러나고 결국에는 내담자를 해하게 되는 상담자가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내담자에게 해를 끼치게 되는 상담자의 행동의 위험성을 강조하기 위해 미국심리학회(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APA], 2002)는 상담자 전문성과 윤리강령의 첫 번째에 ‘내담자에게 해를 끼치지 말라’고 명시하고 있다. 즉 상담에 있어서 내담자에게 변화를 이끌어 내어 상담의 성과를 높이는 부분도 분명히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상담자 스스로가 잘 발달된 상태로 내담자와의 상담을 이루어내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이다(Lane, 2016; Smith & Koltz, 2015).

그러나 상담자 발달이 상담을 공부하는 모든 사람들 혹은 상담 자격증을 획득한 상담자들 모두가 경험하는 것은 아니며, 동일한 수준으로 발달하는 것도 아니다(Skovholt & Rønnestad, 1992; Luther & Barnes, 2015). 이를 두고 Urofsky(2013)는 상담은 다른 치료적 영역과는 다르게 치료구조화가 유연하며 상담자 체험의 절대적 중요성과 이론적 지식이 뒷받침되어야 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상담 실무 경험의 축적 뿐만 아니라 상담자 스스로 자신에 대한 자각과 성장을 향한 성찰과 노력이 필수적인 분야라고 하였다. 이를 증명하듯 국내외를 막론하여 상담학이 도입된 초기부터 반세기가 지난 지금까지 상담자 발달 관련한 이론과 체계 그리고 상담자 발달을 위한 교육 연구는 끊임없이 지속되고 있다(김진숙, 2001; 최한나, 2005; Konstam et al., 2015; Lane, 2016; Orlinsky & Rønnestad, 2015; Skovholt & Rønnestad, 1992; Smith & Koltz, 2015).

국외에서는 초창기 상담자 발달이론 연구가 Fleming(1953)과 Hogan(1964)의 상담자 전문성 발달의 단계가 존재한다고 보고하면서 상담자 발달에 관한 연구가 시작되어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상담자발달 이론은 이후 상담성과에 있어서 상담자라는 주요한 요인을 기준으로 하여 다양한 연구를 촉진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 중 Skovholt와

Rønnestad(1992)는 상담자 발달 전반에 관하여 연구하며 상담자의 성장과 관련되어 상담자 발달단계는 필연적으로 이루어지나 이는 비연속적이며 누구나 다 발달하며 성장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특히 Howard, Inman과 Altman(2006)의 초심상담자를 대상으로 한 상담자 교육에 관한 연구에서, 초심상담자들의 경우 동일한 상담교육을 받더라도 모두가 다 성장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 즉 동일한 수련과정 안에서 동일한 교육 프로그램에 참가하더라도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수준과 성과는 다르다는 것이다. 또한 주로 초심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상담자 교육과 훈련과 관련되어서 상담자의 내적 성찰을 이루는 효능감과 정체성에 관련된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Al-Darmaki, 2004; Lent, Hill, & Hoffman, 2003). 이들 연구는 상담에 있어서 가장 훌륭한 도구는 상담자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Ohrt, Swank, & Young, 2009).

이러한 초심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 외에도 상담자들이 경험하는 결정적 사건, 즉 상담자를 성장시키고 발달시켰던 계기에 대한 연구 또한 실시되어 왔다(Furr & Carroll, 2003). 즉 상담 도중에 성장을 이끈 결정적 체험이 상담자를 통찰하게 하여 성장하게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모든 상담자들이 결정적 사건을 체험하는 것은 아니며 설사 체험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체험을 소화시키기는 수준은 상담자의 발달 단계마다 다르다고 보고된다(Woodside et al., 2007). 즉 교육과 체험이 상담자를 성장시키지만 이 성장의 정도는 상담자의 발달 수준에 따라 충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듯 상담자 교육 프로그램에 있어서 동일한 프로그램 경험이 있어도 상담자 수준에 따라 다른 관용과 인내심, 수용 태도를 보인다. 상담자 수준에 따라 결과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교육이든 교육 자체는 성장의 촉진제가 될 수도

있다(Levitt & Jacques, 2005). 다시 말해 대다수 상담자들에게 있어서 일정한 수준의 수련경험은 그들의 발달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다. 하지만 수련경험을 한 모든 상담자들이 동일한 발달 수준과 일련의 연속적인 발달을 경험하지는 못한다는 것이다(Duncan & Reese, 2016). 이와 같이 국외의 연구는 상담자 발달단계 이론을 시작으로 하여 상담자를 교육하는데 주 초점을 맞추었으며 그 결과 상담자마다 다른 성장 단계와 발달을 보이며 그 수준 역시 다양하다는 것, 교육을 받은 상담자는 그것이 눈에 보이든 보이지 않던 유의미한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Morrisette & Gadbois, 2006; Rønnestad & Skovholt, 2003; Woodside et al., 2007).

국내에서도 상담 분야의 도입 이후 상담의 효과성과 함께 상담자의 발달에 관한 연구가 동시에 진행되었다(최한나, 2005). 1990년 초반 김계현(1992)의 연구를 시작으로 하여 상담자의 발달단계와 교육에 대한 관심은 심홍섭(1998)의 상담자 발달단계 척도개발, 문수정(1998)의 상담자 교육 요구도 연구, 류진혜(1999)의 상담자 교육을 위한 인지기술 훈련 프로그램의 개발 연구를 통해 나타났다. 이후 상담자 발달 관련한 연구들은 2000년대에도 지속되면서 상담자 경력에 따른 슈퍼비전에 대한 연구(김계현, 문수정, 2000), 상담자 발달 수준과 상담자 교육에 관련된 연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유성경, 이문희, 조은향, 2010; 이미선, 권경인, 2009; 장안덕, 이영순, 천성문, 2009). 이렇듯 상담자 발달과 관련하여 지속적인 연구들이 수행되고 있다는 것은 결국 상담에 있어서 상담자가 중요한 요인이라는 것과 상담자를 발달시킬 수 있는 적절한 교육의 적용은 상담효과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으로 고려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최한나, 2005).

이와 같이 국내의 상담자 발달에 관한 연구는

일차적으로 상담자들의 발달 단계를 이해하고 그 발달 수준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고자 시행되어 왔다. 이는 상담자 교육을 통하여 상담자를 ‘좋은 상담자’로 성장시켜 상담에 긍정적 효과를 만들어 낼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이미정, 박승민, 2015). 이차적으로 상담자 발달 요인들을 탐색하는 것은 ‘상담자 교육’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획득하고 상담자들이 갖추어야 하는 요인들을 찾아 교육적 프로그램에 포함하거나 교육모델을 정립하기 위함이다. 이는 이후 상담자 발달이 제공하는 상담 효과성에 대한 함의와 상담의 교육적 가치를 부여하는데 의미를 두는 것이다(장안덕, 이영순, 천성문, 2009). 이러한 맥락으로 현재 상담자 발달과 관련한 국내의 연구는 주로 교육과 교육 요구 분야가 주를 이루고 있다(김민정, 조화진, 2015). 국내·외 상담자 발달모델을 분석(최하나, 2005)하거나 슈퍼비전을 통한 상담자 발달을 연구한 김진숙(2001)의 연구가 대표적이다. 상담자 발달과 관련하여 종합적으로 정리한 논문은 부족한 실정이다. 즉 상담자 발달과 관련한 연구들은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음(이운주, 2015)에도 불구하고 이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국내의 상담자 발달 관련한 최근의 경향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상담자 발달과 관련하여 국내에서 발표된 학술지에 출간된 연구물들을 종합하여 국내의 상담자 발달 관련한 연구의 경향을 파악하고 객관적으로 종합하여 분석해 보고자 하였다. 한 연구 분야에 있어서 비판적인 경향 분석이란 것은 그 연구 분야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실질적으로 의미 있게 연구되고 있는 방향과 연구자들의 가치를 발견하여 이후 연구들에게 더 많은 정보와 의의를 제공하는데 필수적인 일이다(이숙영, 김성희, 2003). 또한 관련 요인들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양적인 크기로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은 질적인 요인들을 구체화시켜 이론적으로 설명이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것이다(이운주, 2015). 본 연구에서 학술지만을 중심으로 연구물을 분석한 것은 각 연구에 대한 결과를 복수의 심사위원들이 학회의 엄격한 심사기준에 의거하여 심사하기 때문에 연구논문이 타 출판물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신뢰성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우형진, 박지연, 2011; 현영섭, 2014; Paolucci, Genuis, & Violato, 2001).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경향 분석을 통하여 상담자 발달 관련한 국내의 연구들의 특징과 관련 있는 주제와 대상 그리고 제안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특히 국내 상담학에서 상담자 발달과 관련하여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에 대한 종합적인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상담자 발달과 관련된 요인들을 분석하는데 있어서 분석적인 틀을 사용하고 종합할 수 있는 메타분석은 보다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해줄 수 있다(황성동, 2014). 따라서 각 요인과 상담자 발달과의 상관관계의 크기를 분석함으로써 어떤 요인이 상담자 발달에 가장 큰 영향을 나타내고 있는지 혹은 관련 요인 간에 어떠한 관계를 나타내고 있는지를 양적이고 객관적인 자료 분석을 통해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앞으로 상담학 관련 연구자와 현장에서 일하는 실무자들에게 도움이 되고 동시에 상담자 교육모델과 상담자 발달 과정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공해 보고자 한다.

방 법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절차

본 연구에서는 2016년 5월까지 국내에서 발

표된 상담자 발달에 대한 연구물을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자료 수집을 위해서 국회도서관, 과학 기술정보 통합서비스(NDSL), 누리미디어(DB-PIA), 한국 교육학술정보원 학술연구 정보서비스(RISS), 한국 학술정보원(KISS)의 온라인 검색 DB를 활용하여 분석대상 논문을 검색하였다. 우선 주제를 ‘상담자 발달’, ‘상담자 발달 과정’을 대상으로 검색하여 검색된 논문 254편을 모두 수집하였다. 그 중 상담자 발달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논문, 상담자 발달이 핵심어로 입력되었으나 발달에 관한 논문이 아닌 경우의 논문, 질적 연구의 경우 평정자간 불일치하거나 원문 보기와 열람이 중단된 논문 등은 연구대상에서 제외하였다. 그 결과 자료 검색 결과 연구 동향 분석을 위한 학술지 논문은 56편이 선정되었다. 또한 메타분석을 위한 분석대상 논문은 연구동향 분석대상에서 선정된 56편 중 상관관계 값이 제공되지 않거나 상관관계 값을 계산하는데 필요한 수리적 정보가 제시되어 있지 않은 논문 45편을 제외하고 총 11편의 학술지 논문을 추출하여 메타분석을 실시하였다.

자료 분석과 절차 및 효과크기 계산

수집된 자료는 연구 동향에 대해 먼저 분석하고 메타분석이 가능한 연구들을 분류하여 2차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동향 분석은 상담자 발달과 관련하여 국내·외 연구동향을 분석한 최한나(2005)와 이후 집단 상담자발달과정에 대하여 지속적인 연구를 진행한 권경인, 양정연(2013)의 연구를 참고하여 진행하였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일차적으로 연구자(출판연도), 연구주제, 상담자 특성(상담자 수준, 상담대상, 상담분야), 측정도구 및 연구방법, 연구절차, 연구 결과를 분류하여 코딩한 후 각 논문을 분석하였다.

이차적으로 메타분석에서 사용한 상담자 발달 요인과 관련 요인의 분석 범주를 체계화하였다. 첫 번째로 연구별 상관관계 크기 산출을 위하여 다음의 항목을 기준으로 유목화하여 코딩작업을 실시하였다. 유목화의 기준은 상담자 발달 척도를 처음으로 제시한 심홍섭과(1998) 이후 상담자 발달 관련한 양적연구에 있어서 대다수 연구자(나현미, 정남운, 2016; 백미현, 유현실, 2012; 임고운, 김지현, 2008)들이 사용한 심홍섭(1998)의 ‘상담자 발달 수준 평가에 관한 연구’를 기반으로 하여 상담자 발달 관련 하위 요인을 유목화 하였다. 유목화 요인은 상담 대화기술, 알아차리기, 사례 이해, 상담 계획, 인간적 윤리적 태도의 다섯 가지를 기반으로 하였다. 더불어 국내에서 상담자 교육과 발달 단계에 관한 이론을 초창기에 체계화하여 이후 연구자들(김민정, 조화진, 2015; 신종임, 천성문, 이영순, 2004)이 상담자의 교육수준을 구분할 때 주로 인용되는 김계현, 문수정(2000)의 슈퍼비전을 위한 상담자 교육 발달단계에 따른 범주를 기준으로 하였다. 즉 ‘실습 준비기’, ‘실습 수련기(초급기, 중급기, 고급기)’, ‘자기 수련기’ 등의 세 가지 단계에서 각 상담자 수준을 기준으로 하여 상담자 개인요인, 상담자 내담자 관계, 상담 관련한 교육 등으로 세분화시켜 하위요인을 범주화 하였다. 이러한 범주화의 기본은 Carl Rogers(1952)의 ‘상담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내담자)이, 전문적 훈련을 받은 사람(상담자)과의 대면관계에서, 생활과제의 해결과 사고, 행동 및 감정 측면의 인간적 성장을 위해 노력하는 학습 과정이다’라고 정의한 상담의 구성 요소로서, 상담자 개인, 상담자와 내담자와의 관계, 그리고 이장호(1962)가 제시했던 상담자 교육을 포함하여 체계화 하였다. 이후 분석 시 논문의 기본 정보(저자, 출판연도, 표본 수, 상관관계 값을 포함한 통계수치)와 각 관련 요인들의 하위 요인들을 입력하였다. 메타분

표 1. 상담자 발달요인과 관련 요인의 분석 범주와 체계

상담자발달요인	구성범주	하위요인	영역	
사례이해 상담계획 알아차리기 상담대화기술 인간적·윤리적	상담자 요인	연령/경력/학력		
		상담자 정서	스트레스/소진 애착	회피, 불안, 안정
			자기성찰 마음 챙김	자기대화, 성찰일지
		상담자 성숙도 역량	역전이 활용	내담자 이해 자기통합/자기통찰 불안·역전이 관리능력
			탄력성	자아탄력성 상담자 소진 회복 탄력성
			적응 유연성	
		상담자 내담자 관계	상담성과/기대 작업동맹 (치료적 협력)	내담자/상담자 내담자/상담자
		상담관련 교육	교육/정신분석 교육요구	슈퍼비전 교육실태/만족

석의 자료 분석 절차는 전체 출판 편향 검증, 동질성 검증 및 전체 상관관계 효과크기 분석, 상담자 발달 관련 전체 요인과 관련 요인간의 상관관계 효과크기 하위요인의 상관관계 조절효과크기 분석과 연도별 메타회귀분석의 과정을 거쳤다. 이 연구의 분류체계는 표 1에 제시한 바와 같다.

결 과

연구 동향 분석

논문 발행연도

상담자 발달과 관련하여 발행 연도별로 정리해

보면, 연도별 연구 편수는 1998년 심홍섭(1998)의 연구를 시작으로 연간 한편씩 출간되어 오다가 2004년 2편, 2005년 6편으로 증가된 후, 2008년 이후 꾸준히 발표되어 2015년 9편으로 증가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2009년과 2015년 사이에는 연구물이 다소 감소하였지만 연구물의 수는 지속적으로 상승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질적 연구의 경우 2008년 1편을 시작으로 하여 2013년의 경우를 제외하고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양적연구 역시 1998년 이후 2000년과 2014년을 제외하고 지속적인 관심 속에서 발표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연구방법별 분류

논문을 연구방법별로 분류하여 살펴보면, 전체

표 2. 연도별 연구방법 논문 편수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질적	0	0	0	0	0	0	0	0	0	0	1	2	2	3	3	0	3	7	21
양적	1	1	0	1	1	1	2	6	2	2	5	4	1	1	1	4	0	2	35
전체	1	1	0	1	1	1	2	6	2	2	6	6	3	4	4	4	3	9	56

56편의 연구 중 21편의 연구가 질적 연구로 실시되었고 35편은 양적연구였다. 세부적 결과는 아래 표 3과 같다. 질적 연구 방법의 하위분류는 현상학(7편), 근거이론(7편), 사례연구(3편), 합의적 질적 연구방법(CQR)(3편), 주제 분석(1편)의 순으로 나타났다. 양적연구의 경우는 설문지, 즉 측정도구를 사용한 분석 방법(다중회귀, 매개, 조절효과, 상호작용, 상관관계분석, 구조방정식, 위계적 선형 모델 : HLM)(18편), 문헌고찰(10편), 실험연구(자극

동영상 제공, 위기사례제공 등 4편), 프로그램 효과성 분석(2편), 척도 개발(1편)의 연구방법이 사용되었다.

연구대상별 분류

논문을 연구 대상별로 분류하여 분석한 결과 집단 상담자와 개인 상담자에 따른 분류, 성인 대상 상담자와 아동·청소년 대상 상담자에 따른 분류가 가능하였다. 질적 연구의 경우 개인 상담

표 3. 연구방법별 하위 분석 방법

연구방법	질적연구	편수(%)	연구방법	양적연구	편수(%)
	현상학	7(33.3%)		문헌고찰	10(28.6%)
	근거이론	7(33.3%)		설문지	18(51.4%)
	사례연구	3(14.2%)		실험연구	4(11.4%)
	합의적 질적 방법	3(14.2%)		프로그램	2(8.5%)
	주제 분석	1(4.7%)		척도개발	1(0.3%)
총 편수		21(37.5%)			35(6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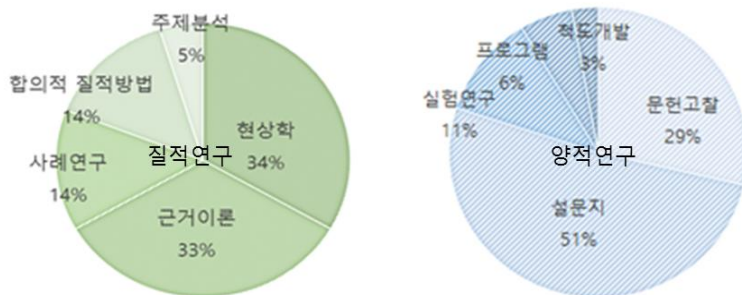


그림 1. 연구방법별 하위 분석 방법

표 4. 연구대상별 분류

연구방법	대상 분류 I		대상 분류 II	
	개인	집단	성인	아동·청소년
질적연구	19(90.4%)	2(9.5%)	18(85.8%)	3(14.2)
양적연구	32(91.4%)	3(8.5%)	31(88.5%)	4(11.4%)
전체	51(91%)	5(8.9%)	49(87.5%)	7(12.5%)

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19편(90.4%), 집단 상담자를 대상으로 연구한 논문은 2편(9.5%)이었으며, 양적 연구의 경우 개인 상담자 발달에 관한 연구는 32편(91.4%), 집단 상담자 발달에 관한 연구는 3편(8.5%)으로 나타났다. 총 56편의 연구 중 개인 상담자 발달단계와 관련한 연구는 51편(91%), 집단상담자의 발달단계와 관련한 연구는 5편(8.9%)으로 개인 상담자 발달 단계에 대한 논문이 전반적으로 더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었다. 두 번째로 연구 대상을 주로 성인을 상담하는 상담자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상담하는 상담자 관련 발달단계를 분석해본 결과, 질적 연구의 경우 성인 대상 상담자 연구는 18편(85.8%), 아동·청소년 대상 연구는 3편(14.2%)이었다. 또한 양적연구의 경우 성인 대상 상담자 관련 논문은 31편(88.5%), 아동·청소년 대상 상담자 발달 관련 연구의 경우는 4편(11.4%)이었다. 즉 전체 56편의

연구 중 성인 대상 상담자의 발달 단계를 연구한 논문은 49편(87.5%), 아동·청소년 대상 상담자 발달에 관한 연구는 7편(12.5%)으로 나타났다.

상담자 경력에 따른 수준별 분석

연구대상 상담자의 경력에 따른 수준별 분석 결과, 질적 연구의 경우 상담자를 자격증 유무와 급수, 경력을 고려한 수준(1급, 2급, 자격증 미소지자/상담경력 초심 3~5년 미만, 전문가 5년 이상~10년 미만, 숙련 상담자 10년 이상)으로 각 발달 단계를 연구한 논문은 2편(11.7%), 한국 상담학회 혹은 상담심리학회 자격을 미소지한 학부생과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2편(11.7%), 상담학회와 상담심리학회 2급 자격증을 소지하고 5년 미만의 상담경력을 가지고 있는 초심 상담자의 발달단계에 관한 연구는 8편(47%), 상담학회와 상담심리학회 1급 자격을 소유하고 경력 10년 이

표 5. 연구 대상 상담자의 경력 수준별 분류 연구

연구방법	대상 분류			
	수준별	학부생/대학원생	초심	전문가(숙련)
	(상, 중, 하)	자격증 미소지/상담수련생	2급자격/5년미만	1급자격/10년이상
질적연구	2(11.7%)	2(11.7%)	8(47%)	5(29.4%)
양적연구	15(83.3%)	0	1(5.5%)	2(11.11%)
전체	17(48.5%)	2(5.7%)	9(25.7%)	7(20%)

* 전체 분석 대상 논문 56편 중 21편은 상담자의 수준이나 구분이 제시되지 않음.

상의 전문(숙련) 상담자 발달 관련 연구는 5편(29.4%)을 차지하였다. 양적 연구의 경우 상담자의 경력을 수준별로 구분하여 각각의 발달 단계별 특성을 연구한 논문은 15편(83.3%), 2급 자격증을 소지하고 상담경력 5년 미만의 초심 상담자의 발달단계를 연구한 논문은 1편(5.5%), 1급 자격증을 소지하고 상담경력 10년 이상의 숙련 상담자 혹은 전문가급 상담자의 발달특성에 관한 연구는 2편(11.11%)을 차지하였다. 전체적으로 상담자 발달 관련한 연구의 특성은 상담자의 경력과 자격증을 고려한 수준별로 분류한 후 각각의 특성에 관하여 연구한 논문이 35편 중 17편(48.5%)으로 다수를 차지하였으며, 초심 상담자의 발달단계별 연구 9편(25.7%), 숙련 상담자의 발달단계별 특성에 관한 연구 7편(20%), 학부생과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2편(5.7%)의 순이었다.

연구주제별 분류

상담자 발달 관련한 논문들의 전반적인 주제는 이흥숙, 주수현, 김효정(2011)의 연구에서도 보고한 바와 같이 상담자 발달단계 혹은 발달수준과 관련하여 상담자 발달 단계의 특성, 초심과 전문 슈퍼바이저의 발달단계별 특성들에 관한 용어를 주요어로 한 연구들이 주를 이루었다. 또한 상담자 발달과에 있어서 교육 요구를 주요어로 적용하여 상담자 발달에 있어서 자신에 대한 성찰과

상담자로서 내적 성장을 위한 교육 분석, 정신 분석과 발달특성을 연구한 논문과 상담자 발달을 위한 교육과 관련하여 상담실습 경험 프로그램 적용 논문 등이 발표되었다. 그리고 상담자 개인의 정서적 측면, 역량적 측면인 마음챙김, 자아성찰, 역전이 활용 능력 그리고 경력, 학력, 연령 등의 변인들과 관련한 기타 연구도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 중 질적 연구의 경우 발달 특성과 상담 과정에 대한 연구는 질적 연구 전체 21편중 8편(38.1%), 상담자의 성장과 관련된 교육 분야와 상담 전반에 걸친 연구가 6편(28.6%), 상담자 개인 특성 변인으로 애착, 마음 챙김, 역전이 활용, 스트레스 대처 소진 등에 관련한 연구 7편(33.3%)의 순으로 나타났다. 양적연구의 경우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연구 분야가 상담자 변인으로서 상담에 영향을 제공하는 상담자 개인의 역량에 관한 부분, 특히 역전이 활용, 자기성찰, 마음챙김, 애착과 관련한 변인들과 상담자 발달 수준별 특성에 관하여 연구한 논문이 전체 35편중 19편으로 54.2%을 차지하였다. 다음으로 상담자 교육과 발달단계를 연구한 논문은 11편(31.4%), 발달과정에서의 특징을 본 연구는 5편(14.2%)의 순이었다.

분석논문의 특성

동향분석에 사용된 총 56편의 논문의 연구주제, 연구 방법, 결과 등 분석논문의 특성은 표 7에 요약 및 정리하여 제시하였다.

표 6. 연구주제별 분류

	상담자발달단계	상담자교육관련	기타	전체
질적연구	8(38.1%)	6(28.6%)	7(33.3%)	21(37.5%)
양적연구	5(14.2%)	11(31.4%)	19(54.2%)	35(62.5%)
전체	13(23.2%)	17(30.3%)	26(46.4%)	56(100%)

표 7. 동향분석에 사용된 연구와 분석표

연구자(연도)	연구주제	연구방법	연구결과	등재	연구대상	수준	인원
강준혁, 조항용, 임원선(2015)	전문성발달경험	질적 사례	교류분석 상담사들의 특이점: 윤리의식의 중요성	후보	한국사회복지 질적연구	전체	4
강진구(2005)	단기훈련 프로그램	양적 실험	심리학과 상담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단기상담 프로그램 효과성	등재	상담학연구	수준별	24
강진구, 연문희(2005)	단기훈련 프로그램	양적 실험	단기상담실시 자신의 효능감과 상태불안	등재	상담학연구	수준별	27
고운희, 박성현(2014)	자기성찰경험	질적 현상학	전문상담사의 자기성찰과 반성 발달과정상찰	등재	한국심리학회지	전문가	10
권경인, 지희수(2010)	집단상담 전문가 발달특성	질적 근거	집단을 해석하는 인지기능과 정서기능이 초심 상담자	등재	상담학연구	전문가	10
권경인, 지희수, 강신호, 김미옥(2012)	집단상담자의 전문성	질적 근거	집단상담자 발달 요구 특성	후보	인간이해	수준별	40
김광용, 최명진, 김현주(2004)	자이탄력성 스트레스	양적 설문	상담자의 자이탄력성과 스트레스 대처양식	등재	인간발달연구	수준별	135
김미경(2008)	기독교상담사	질적 근거	기독교상담사의 발달모형과 발달요인분석	등재	신학논단	초심	15
김미경(2010)	내담자 초기종결	질적 현상학	초기종결을 경험한 기독교상담자의 자기성찰에 관하여 자전적 회고록을 통한 질적연구상담자 전문발달경험/	등재	복음과 상담	초심	10
*김민정, 조화진 (2015)	슈퍼비전, 교육분석	양적 설문지	교육, 실무, 및 슈퍼비전 경험 뿐 만아니라 교육분석이 상담자 발달에 중요한 활동임을 시사	등재	상담학연구	수준별	221
김영은, 이현경(2015)	융합적교육성찰일지	질적 현상학	자기성찰일지를 통한 학부생의 상담을 통한 자기성장	후보	한국융합학회	대학원	7
*김준혜, 안현의 (2013)	마음챙김, 역전이	양적 설문지	상담자 역전이 마음챙김을 매개로 로 효과성 검증	후보	인간이해	수준별	214
김진숙(2001)	상담자 발달모형	양적 문헌	국내외의 상담자 발달 모형을 제시	등재	한국심리학회지	-	-
김현령, 김창대(2013)	자기대화내용	양적 실험	집단원 대화특점 상황에서 수련상담사와 초보상담사의 상황해석능력에 대한 차이분석 결과 수련상담사들이 인지적 해석을 더 많이 함.	등재	상담학연구	수준별	28
*김현정(2005)	자기위로/역전이관리	양적 설문지	역전이 관리능력과 상담자 발달단계에 따른 구분	-	학생생활연구	수준별	104
*김현주, 이영애 (2007)	에착상담자발달	양적 설문지	놀이치료사와의에착과발달치료동태에관한연구	등재	한국놀이치료학회	수준별	83
박영미, 엄정혜, 정신아, 최명식, 신혜린(2014)	레지던트로 수련경험	질적 합의적	인터뷰 후 레지던트 수련생의 경험분석	등재	인간이해	레지던트	9
*배연옥, 조성호 (2009)	자기성찰과 슈퍼비전	양적 설문지	수퍼비전 교육을 통한 자기 성찰과 수련별 인식차이	-	학생생활상담	수준별	122

표 7. 동향분석에 사용된 연구와 분석표 (계속 1)

연구자(연도)	연구주제	연구방법	연구결과	등재	연구대상	수준	인원
*백미현, 유현실(2012)	소진 적응유연성	양적 설문지	상담사들을 대상으로 하여 소진과 발달 적응유연성과의 관계를 파악함	등재	상담학연구	개인(성인)	수준별 219
성승연(2009)	수퍼비전	양적 문헌	수퍼비전 교육의 효용성	-	학생생활상담	개인(성인)	수준별 -
손은정, 유성경, 심혜원(2003)	자기성찰	양적 문헌	해외이론을 중심으로 자기성찰에 대한 고찰	등재	상담학연구	개인(성인)	수준별 -
손은정, 유성경, 강지연, 임영선(2006)	상담자경력 수퍼비전	양적 설문지	상담자경력에 따른 수퍼비전 양성비교	등재	한국심리학회지	개인(성인)	수퍼 바이지 170
손은정, 이해성(2002)	사례개념화	양적 실험	개념도 실질적으로 그려봄 양적 체크 경력 설문지	등재	한국심리학회지	개인(성인)	수준별 36
손현동, 진명식, 유형근(2008)	윤리적 갈등상황	양적 실험	수준별 윤리적갈등 상황 제시 실험개념도 확인	등재	상담학연구	개인(성인)	수준별 73
*송은화, 전남윤(2005)	수퍼비전 교육요구	양적 설문지	상담자의 수퍼비전교육시 숙련상담사에 대한 요구	등재	한국심리학회지	개인(성인)	숙련 상담자 234
심수명(2008)	상담자 발달모형	양적 문헌	기독교 상담사들의 발달 모형과 진번적 수퍼비전	-	국제신학	개인(성인)	기독교 -
심지은, 온호권(2008)	마음챙김	양적 문헌	상담사 관련변인 마음챙김 여진이 공간 발달	등재	한국심리학회지	개인(성인)	진체 -
심홍섭(1999)	수퍼비전	양적 문헌	수퍼비전 교육과 상담자 발달	-	학생생활상담	개인(성인)	진체 -
심홍섭, 이영희(1998)	척도	양적 척도	한국 상담자들의 발달수준 척도개발	등재	한국심리학회	개인(성인)	진체 107
*양현숙, 이신미(2004)	수퍼비전	양적 설문지	상담사발달에 따른 수퍼비전내용의 차이	등재	미래유아교육	개인(아동)	진체 60
오원수, 한계희(2009)	취절극복경험	질적 근거	전문상담사 대상으로 한 취절극복경험과 결정적 사건에 대한 이야기 이후 탄력성에 대한 추적	등재	상담학연구	개인(성인)	숙련 8
유성경, 심혜원(2005)	자기대화내용	양적 설문	상담사 수준별 자기대화내용의 질이 다르다	등재	한국심리학회지	개인(성인)	수준별 34
윤희삼, 정원희(2010)	역진이 예측	양적 설문	역진인과 예측이 상담자 발달에 따라 다른 양상보임	등재	상담학연구	개인(성인)	진체 95
이문희(2011)	심리치료(수퍼비전)	양적	상담사 심리치료와 전문성 발달을 묶음	등재	수준	개인(성인)	진체 -
이미진, 권경인(2009)	집단상담자 교육요구	양적 문헌	경력에 따른 집단 상담자의 교육요구에 대한 비교	등재	상담학연구	집단(성인)	수준별 214
이미경(2015)	상처임은 치유자	질적 현상학	상담자발달경험: 상처받은 경험이 긍정적 작용	-	가족과 상담	개인(성인)	진체 9
이미경, 박승민(2015)	연결회복과 자기분화	질적 현상학	4가족관계 안에서 개인적 발달이 상담적 발달을 일으키는 부분에 관한 연구	등재	상담학연구	개인(성인)	진체 9
이수림 조성호(2009)	지혜	양적 설문	상담자 수준에 따른 지혜의 특성비교	등재	한국심리학회지	개인(성인)	상담자 일반인 115\ 188

표 7. 동향분석에 사용된 연구와 분석표 (계속 2)

연구자(연도)	연구주제	연구방법	연구결과	등재	연구대상	수준	인원
이수영, 윤미선, 김영은(2015)	성찰/융합적 교육	질적 현상	성찰일지를 통한 상담진문가 발달경험 융합적 교육방법의 상담실습증심으로	후보	한국융합학회논문	개인(성인)	대학생 6
이수현, 김동민, 서영석(2006)	예측유형, 공감능력	양적 설문	상담자의 예측유형과 상담경험이 공감능력에 정적영향	등재	한국심리학회지	개인(성인)	수준별 153
이홍숙, 주수현, 김효경(2011)	결장적사건	질적 합의	인담상담자를 대상으로 상담자 발달에 있어서 결정적 사건	등재	한국심리학회지	개인(성인)	인턴 15
*임고운, 김지현(2008)	역진이	양적 설문	상담자가 역진을 겪기적으로 활용할 필요	등재	상담학연구	개인(성인)	상담사 185
임은미(2013)	기관상담자	양적 문헌	상담자 발달단계별 도전과 대응에 대한 문헌 정리	-	한국대학학생활 상담센터	개인(성인)	상담사 -
진정운, 한계희(2012)	전문성 발달과정	질적 근거	초심수퍼바이저의 발달과정에 대한 연구	등재	상담학연구	개인(성인)	9
진정운, 한계희(2012)	실무경험	질적 주제	청소년상담원 면접을 통한 실무경험	등재	한국심리학회지	개인(청소년)	상담사 -
*정희선, 김지현(2013)	예측 작업동맹	양적 설문	상담사 예측과 발달수준 조절효과 작업동맹	후보	인간이해	개인(성인)	98/ 106
조남정, 이미현, 김인규(2015)	교육과정경험연구	질적 합의	상담자 교육과정에 있어서 합의적 질적연구(QQR)	등재	상담학연구	개인(성인)	학부생 15
조은정, 이영애(2007)	자기위로능력	양적 설문	자기위로능력과 상담전문성발달에영향변인검증	등재	한국놀이치료학회	개인(아동)	숙련 103
진화숙(2011)	이동상담	질적 현상	이동상담자의 성장 체험 현상학적 연구	등재	한국놀이치료학회	개인(아동)	숙련 3
채민정, 김창대, 김수임(2008)	자기대화내용	양적 실험	내담자 회기 불참에 대해서 자기 대화의 차이 분석	등재	상담학연구	개인(성인)	수준별 20
*최정호, 한영주(2015)	작업동맹	양적 설문	상담자와 내담자의 작업동맹	등재	청소년학연구	개인(청소년)	진계 87
최한나(2005)	수퍼비전	양적 문헌	상담자 발달을 수퍼비전과 상담자 발달모델을 국내의	등재	상담학연구	개인(성인)	숙련 -
허경, 홍지영(2011)	수퍼비전	질적 단계	집단수퍼비전 1급상담자발달	등재	등재	집단(성인)	숙련 12
허계경, 김지현(2009)	수퍼비전	질적 사례	적용단계 모델링 단계기술 발달단계 정제성 발달단계	등재	상담학연구	개인(성인)	초심 8
허계경, 신영주(2015)	역상상담자	질적 근거	역상상담사	등재	한국심리학회지	개인(성인)	초심 8
황지연(2014)	영성	질적 참여	기독교상담사들의 발달단계교육과정을 위한 영성의 통합 영성수련에 대한 이야기	등재	한국기독교상담학	개인(성인)	상담사 12

* 매타분석에 사용된 논문 - 정보 없음

메타분석

출판편향 검증

최종 선정된 11편의 논문(효과크기 사례 수 =398)에 대한 출판편향(publication bias)의 분석을 실시하였다. 황성동(2014)과 Cooper(2016)은 메타분석 시 연구대상의 최종편수의 결정은 분야의 중요성에 의하면 최소 10편 이상인 경우 분석타당성을 논의할 수 있으며 이는 출판편향에 따라 분석의 용이성이 달라진다고 보고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수집된 논문들의 출판편향(publication bias)을 살펴보기 위해 추정치 가감법(trim & fill) 방법을 활용하여 일종의 민감도 분석을 해본 결과 표 8과 같이 연구물의 관찰 값과 보정 값이 '0'으로서 같게 보고되었다. 이는 앞으로 진행될 연구에 있어서 보정할 연구물을 추가하지 않아도 출판편향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는 다음의 출판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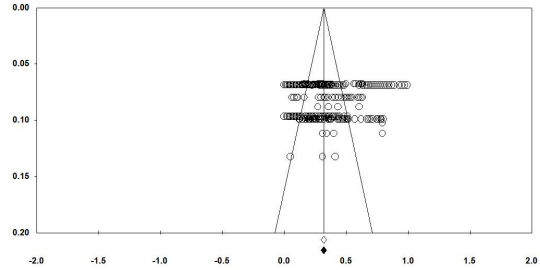


그림 2. Funnel Plot

향을 확인 하는 Funnel Plot 그림에서 역시 관찰 값과 보정 값의 변화가 없음을 통하여 출판편향이 존재 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었다.

상담자발달과 관련요인간의 상관관계 효과크기 및 효과의 동질성 검증

본 연구에서 선정한 11편의 연구물에서 나온 398개의 효과크기로부터 계산된 전체 효과크기를 산출 한 결과는 표 9와 같다. 유의 수준 .05에서

표 8. 추정치 가감법(trim and fill test result)

	Studies Trimmed	ES _{tr}	95%CI		Q(w)
			Lower	Upper	
연구물 관찰 값	0	.36734	.25304	.48163	1940.66836
연구물 보정 값	0	.36734	.25304	.48163	1940.66836

ES_{tr}: 효과크기, CI: 신뢰도 구간

표 9. 상담자 발달요인 전체와 관련변인간의 상관관계 효과크기의 동질성 검증 및 전체 무선효과크기

동질성 검증								
	n	k	Q(df)	p	I ²	SE		
전체	11	398	3449.353**	.000	88.491	.012		
무선효과(Random effect) model								
	n	k	-95%CI	ES _{tr}	+95%CI	p	%	SE
전체	11	398	.253	.367	.482	.000	62~64	.058

Q_B: 그룹간 차이검증, ES: 효과크기, n: 연구편수, k:효과크기수, CI: 신뢰구간, I²: 총 분산 대비 비율

동질성 검정을 실시한 결과 Q 값은 3449.353($p < .01$)로 귀무가설이 기각되어 이질적인 것으로 판단하여 무선효과(Random Effect) 모형을 적용하였다(황성동, 2014). 또한 총 분산 대비 비율을 나타내는 I^2 의 값 역시 88.491로, 50보다 크므로 상당한 이질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의 결과를 통하여 각 연구가 각각 다른 연구자들에 의해 다른 방식으로 연구되었기 때문에 모집단 효과크기 추정치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본 논문에서는 무선효과(Random Effect) 모형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무선효과 모형(Random Effect)으로 분석한 결과 전체 상관관계 효과크기는 .367로 중간 상관관계 효과크기(effect size)를 나타냈으며, 이는 백분위 비율(%)의 경우 62~64%를 의미한다(Cohen, 1977).

상담자 발달하위요인과 전체 관련변인 간 상관관계 효과크기

상담자 발달 하위요인과 관련 변인 전체와의 상관관계 효과크기를 분석한 결과는 표 10과 같다. 상담자 발달 하위요인인 사례이해, 알아차리기, 상담계획, 상담대화기술, 인간적 태도의 집단 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나 사례이해(.332), 알아차리기(.315), 상담계획(.302), 상담대화기술(.296), 인간적 태도(.297) 순으로 각각 개별

적으로 각 관련 요인과 상담자 발달 하위요인 간의 효과크기는 95% 신뢰구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Cohen, 1977).

상담자 발달 요인과 관련 요인(상담자 요인, 상담자와 내담자의 관계, 상담자 교육)과의 상관관계 크기

상담자 발달요인과 관련요인(상담자 요인, 상담자와 내담자의 관계, 상담자 교육)과 상관관계 크기를 분석한 결과는 표 11과 같다. 세 개의 각 요인의 집단 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Q_b = 237.822, p < .01$) 상담자 요인(.445), 상담자와 내담자의 관계(.266), 상담자 교육(.148)의 순으로 95% 신뢰구간에서 통계적으로 모두 유의미한 상관관계 크기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Cohen, 1977).

상담자 발달과 관련요인의 하위요인(상담자 개인변인, 상담실제, 상담교육)의 상관관계 크기

상담자 발달과 관련요인의 하위요인간의 상관관계 효과크기를 분석한 결과는 표 12와 같다. 첫 번째 상담자 발달과 관련요인 중 상담자 개인변인의 각 하위요인의 상관관계 크기는 역전이 활용(.595), 마음 챙김(.354), 기타(.343), 적응유연성(.258), 자기위로 능력(.242)의 순으로 상관관계 크

표 10. 상담자 발달 하위 요인과 관련 변인 전체와의 상관관계 효과크기

	k	-95%CI	ES_{27}	+95%CI	SE	p	Q_b
사례이해	65	.275	.332	.388	.029	.000	1.158(4)
알아차리기	65	.258	.315	.372	.029	.000	
상담계획	65	.248	.302	.356	.028	.000	
상담대화기술	65	.243	.296	.348	.027	.000	
인간적태도	65	.247	.297	.348	.026	.000	

Q_B : 그룹간 차이검증, ES : 효과크기, SE : 표준오차, CI : 신뢰구간, k : 효과크기수, I^2 : 총분산대비 비율

표 11. 상담자 발달요인과 관련요인과의 상관관계 크기

	<i>k</i>	-95%CI	ES_{zr}	+95%CI	SE	<i>p</i>	Q_b
상담자 요인	195	.415	.445	.474	.015	.000	
상담자내담자관계	87	.228	.266	.303	.266	.000	237.822(2)**
상담자교육	116	.125	.148	.171	.012	.000	

Q_B : 그룹간 차이검증, ES : 효과크기, k : 효과크기 수, SE : 표준오차, CI : 신뢰구간, I^2 : 총 분산대비 비율

표 12. 상담자 발달과 관련요인의 하위요인간의 상관관계 크기

		<i>k</i>	-95%CI	ES_{zr}	+95%CI	SE	<i>p</i>	Q_b
상담자 개인변인	역전이 활용	96	.556	.595	.633	.020	.000	222.831(4)**
	마음챙김	30	.330	.354	.379	.013	.000	
	기타	19	.306	.343	.380	.019	.000	
	적응유연성	20	.225	.258	.291	.017	.000	
	자기위로능력	30	.206	.242	.277	.018	.000	
교육 supervision	교육내용만족	30	.132	.157	.181	.013	.000	28.760(2)**
	교육내용실태	36	.102	.124	.147	.011	.000	
	교육내용요구	36	.040	.068	.090	.011	.000	
상담	상담기대	42	.307	.337	.366	.015	.000	23.016(2)**
	상담성과	12	.196	.334	.472	.070	.000	
	작업동맹	27	.087	.156	.224	.035	.000	

Q_B : 그룹간 차이검증, ES : 효과크기, k : 효과크기수, SE : 표준오차, CI : 신뢰구간, I^2 : 총분산대비 비율

기는 95% 신뢰구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Q_b=222.831(4)$, $p<.01$ (Cohen, 1977)). 두 번째 상담자 발달과 관련요인 중 상담자 교육(슈퍼비전, 학교 안에서의 상담실습, 상담사와 상담교육 전반)의 각 하위요인의 상관관계 크기는 교육내용만족(.157), 교육내용실태(.124), 교육내용요구(.068)의 순으로 상관관계 크기는 95% 신뢰구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Q_b=28.760(2)$, $p<.01$ (Cohen, 1977)). 세 번째 상담자 발달과 관련요인 중 상담실체에 있어서 상담기대(.337), 상담 성과(.334), 작

업동맹(.156)의 순으로 상관관계 크기는 95% 신뢰구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Q_b=23.016(2)$, $p<.01$ (Cohen, 1977)).

논 의

본 연구는 국내의 상담자 발달과 관련한 연구들의 전반적인 동향을 파악하고 상담자 발달에 있어서 요구되는 관련 요인과 하위 요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종합적으로 규명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일차적으로 동향분석을 실시하여 상담자 발달 관련요인들을 추출하였으며, 이차적으로는 통계적으로 검증이 가능한 자료를 분류하여 상담자 발달 전체와 그 하위요인 그리고 관련 요인들 간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 크기를 검증하였다. 일차적으로 실시한 상담자 발달 관련 논문들의 동향 분석은 연도별, 연구대상별(집단과 개인, 성인과 아동·청소년 상담자), 상담자 경력, 상담자 발달과 관련한 주제별로 실시하였다.

동향 분석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상담자 발달 관련한 연구는 김계현(1992)의 제주 상담심리연구회에서의 발표를 시작으로 하고, 상담자 발달 척도를 개발한 심홍섭(1998)의 연구 이후로 양적인 연구편수 및 질적인 다양한 요인 관련 분석이 꾸준히 증가하였다. 질적 연구방법을 사용한 연구의 경우는 2008년 김미경의 기독 상담자 전문 발달 과정에 대한 분석을 시작으로 꾸준히 발표되었다. 이렇듯 연구 방법론을 막론하고 상담자 발달 관련한 연구물의 증가는 상담학 연구 분야에 있어서 중요한 관심 주제 중 하나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상담자는 상담에서 내담자의 변화를 이끄는 가장 중요한 도구(백미현, 유현실, 2012)이며 상담자의 발달은 효과적인 상담 진행과 내담자의 긍정적인 변화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상담학 전반에 걸친 가장 기본적이면서 주요한 주제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2015년 한해 7편으로 급증한 질적 연구의 수는 상담자의 발달 과정이 양적으로 분석될 수 있는 부분 이외에도 질적 연구로 탐색될 독특한 부분이 존재함을 시사하는 것이다.

둘째, 상담자 연구대상별로 논문을 분석한 결과 개인 상담자 발달 단계에 대한 논문이 집단 상담자에 대한 연구 편수보다 전반적으로 더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었다. 이러한 이유는 우선 연

구대상 선정의 용이함이 관계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국내에서는 특별하게 집단 상담만을 실시하는 집단상담자와 개인상담만을 하는 개인상담자로 구분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권경인 외, 2012) 집단상담만을 실시하고 있는 상담자를 대상으로 연구가 진행되기에는 어려운 면이 있다. 또한 집단상담을 함께 하는 상담자 보다 개인상담만을 하고 있는 상담자가 더 많고 그 관심이 개인상담자와 관련된 비중이 더 크기에(권경인 외, 2012) 개인상담자 발달에 관련된 연구가 더 많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결과는 추후 연구에서도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상담자와 집단을 운영하는 상담자 각각의 발달단계의 독특성을 고려하여 연구가 진행되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각 상담자 대상별 교육과정에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즉 집단상담자만의 특성이 있듯이 개인 상담자만의 특성 역시 더 명확하게 요인을 분석하여 연구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세부적으로 연구대상별 분석에 있어서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상담자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상담자로 분류하여 연구된 논문들이 존재하며 이를 분석한 결과 성인 대상 상담자의 발달단계를 연구한 논문이 아동·청소년 대상 상담자 발달에 관한 연구보다 더 많았다. 이러한 결과는 상담자 발달 관련한 연구를 진행할 때 아동·청소년 상담자와 성인상담자로 대상을 분리하여 연구가 가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상담자가 주로 상담하는 대상에 따라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상담자와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상담자를 구분한 바와 같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상담자와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상담자 발달이 독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연구자들이 고려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는 아동은 성인에 비해 자신의 환경을 스스로 바꾸는 것에 주양육자의 영향이 크게 존재하기 때문에 이러한

상호관계를 어떻게 이해하는지에 따라 상담을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상담자와는 다른 양상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박희현, 김광웅, 2006). 즉 성인은 가정환경이 만들어낸 '흔적'을 개인 성인상담자는 사례 개념화를 통해 내담자에 대한 가설을 설정함에 있어서 아동과는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아동·청소년 뿐 아니라 다른 대상, 청·장년과 노년을 대상으로 하는 상담자의 발달 단계의 특성을 살펴볼 필요성을 시사하며 이에 대한 더 많은 연구가 행해지기를 기대한다.

연구대상 상담자의 경력을 기준으로 수준별로 분석한 결과, 질적 연구의 경우 상담학회와 상담심리학회 2급 자격증을 소지하고 5년 미만의 상담경력을 가지고 있는 초심 상담자의 발달단계에 관한 연구와 상담학회와 상담심리학회 1급 자격을 소유하고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숙련) 상담자 발달관련 연구가 대다수를 차지하였다. 이는 질적 연구의 경우 상담자 발달이나 경력에 대한 조작적 정의에 있어서 양적연구와 같은 측정의 제한점으로 인하여 자격증의 유무 혹은 연차를 기준으로 한 경력을 중심으로 초심 상담자와 숙련/전문가를 정의하고 그들을 대상으로 한 논문을 주를 이루고 있었다. 더불어 질적 연구의 대상인 초심과 숙련된 전문가가 되어가는 과정에 대한 관심은 상담 과정에 있어 수련기를 어느 정도 채우고 상담자로서 정체감을 형성한 시기의 상담자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을 것이다. 양적 연구의 경우 상담자 발달단계 척도(심홍섭, 1998)를 사용하여 각 단계별로 집단을 분류한 후 연구를 시행한 연구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이는 각 집단의 차이를 통계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양적연구의 장점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연구에서는 연구방법론을 막론하고 각 상담자의 발달 단계별 연구들에 있어서 과정 중에 충분

히 나타날 수 있다고 보고된(Rønnestad & Skovholt, 2003; Scher, 1981) 상담자로서의 길을 포기하거나 탈락되는 부정적 측면에 대한 연구는 한편도 존재하지 않았다. 이는 추후 국내 상담자 발달 연구에 있어서 다양한 측면을 고려한 주제로 연구가 필요함을 시사하는 결과이다.

마지막으로 상담자 발달 관련한 논문들에 있어서 많이 연구된 주제는 상담자 발달 단계별 특성과 상담자 교육 분야의 하나인 슈퍼비전이었다. 최근에 상담자 발달 관련하여 연구되고 있는 주제는 상담실습과 관련한 학교 내의 수련경험에 대한 연구이다. 이러한 학교 내 상담 실습 관련 수련 경험에 대한 연구들은 최근 상담 관련 학부가 신설되면서 보고되고 있는데 학교수업 과정에서 상담학과 학부생과 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한 상담 실습 경험에 대한 탐색이 실시되고 있다. 이러한 점은 결과적으로 상담관련 학부와 대학원 과정에 있는 상담자들을 구분하여 연구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상담자 발달 관련한 주제에서 교육 외적 측면으로는 상담자 개인의 정서적, 역량적 측면인 마음 챙김, 자아성찰, 역전이 활용능력, 경력, 학력, 연령 등의 변인들과 관련한 연구 또한 수행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Rønnestad 등(1992)의 연구에서 보고된 바와 같이 실제적으로 상담자 발달에 관련하여 내적인 성장은 자아성찰, 자기대화, 역전이, 마음 챙김 등으로 나타나고 외적으로는 이러한 성장을 위한 교육 전반에 대한 주제라는 것과 맥락을 같이 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상담자 발달과 성장에 관한 연구들은 주로 슈퍼바이저가 교육을 하기 위해 슈퍼바이저의 단계를 어떻게 구분하며 어떠한 교육을 하는지에 대한 관심도 반영되어 있음을 보여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상담자 발달 관련하여 상담자 발달 과정에 대한 관심은 물론이고 그들을 교육하는 전문 상담자들이 발달단계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관심이 많은 것을 나타낸다. 이러한 부분은 임고운, 김지현(2008)의 연구에서 초급 상담자에게는 역전이를 자각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며 중급 이상의 상담자에게는 역전이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교육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한 것처럼 각 발달단계에 맞는 교육이 다르며, 수준별 교육에 대해 전문 상담자들 역시 관심이 많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연구 동향은 상담분야 전반에 걸쳐 내담자를 적절히 돕기 위해서 그리고 한 명의 성숙한 상담자를 성장·발달시키기 위한 전반적인 체계를 만들어 나가는 것에 대한 상담학자들의 관심의 반영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위와 같은 상담자 발달에 관한 동향분석을 토대로 통계적으로 분석 가능한 자료를 산출하여 메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상담자 발달 하위요인과 관련 변인들 간의 관계에 있어서 사례이해, 알아차리기, 상담계획, 상담대화 기술, 인간적 태도 순으로 높은 상관 크기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상담자 발달에 있어서 상담 사례를 이해하고 상담의 현장에서 알아차림이 더욱 발달 할수록 상담의 성과가 더 높아질 수 있다고 해석해 볼 수 있으며, 이는 김계현, 이윤주(2002), 이윤주(2001), 이명우(2013), 전정미, 유미숙(2012)의 연구에서 상담의 사례 개념화에 대한 중요성을 이야기한 것과 맥락을 같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상담자의 발달에 있어서 사례 개념의 수준은 숙련상담자와 초심상담자를 구분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즉 사례개념이 어느 정도로 이루어지는가에 따라서 상담 성과가 달라진다는 것이다. 다른 말로 사례개념화가 충분히 되지 않는다는 것은 그만큼 내담자를 이해하는 수준이 낮을 수 있으며 이는 곧 상담자 교육에 있어서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결과라고 해석할 수 있다.

두 번째, 상담자 발달요인과 관련 요인(상담자 요인, 상담자와 내담자의 관계, 상담자 교육)과 상관크기를 분석한 결과 상담자 요인이 가장 큰 상관관계를 나타냈으며 그 다음으로 상담자와 내담자의 관계, 상담자 교육관련 요인 순으로 나타났다. 상담자 요인은 상담자의 경력, 연령, 수준 등 개인 특성 및 상담자 역량과 같은 상담자 개인 능력을 포함하는데, 상담자가 도구인 상담(Fulton, 2016)에서 상담자 개인의 요인의 중요성을 다시한번 확인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Duncan & Reese, 2016). 즉 상담 장면 뿐 아니라 상담자 자신의 발달에 있어서도 상담자 개인적인 요인에 따라 발달을 하기도 하고 정체하기도 하는 것이다(Urofsky, 2013). 또한 상담자 발달에 있어서 상담자 내담자간의 관계가 중간 이상의 상관 크기를 나타냈다는 것은 내담자와의 진정한 관계를 통하여 관계 의미를 주고받은 상담 장면은 내담자를 성장시키고 치유하는 것뿐만 아니라 상담자 역시 성장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진정한 상담자 발달을 이루기 위해서는 개인적인 요인 뿐 아니라 상담과정에서 내담자와의 진정성 있는 만남을 통하여 서로 상생하여 성장할 수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상담자 교육이 상담자 발달과 가장 낮은 상관 크기를 보였는데, 상담자 교육은 상담자 수용 정도가 개인의 발달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Merriman, 2015).

세 번째 상담자 발달요인과 가장 상관관계가 크게 보고된 상담자 요인의 하위요인 중 역전이 활용능력과 마음 챙김 요인의 상관관계 효과크기가 가장 컸다. 이러한 결과는 상담자가 상담 상황에서 어떻게 역전이를 조절하여 자신의 상태를 파악하고 상담을 원활하게 진행 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보고했던 임고운, 김지현(2008)의 연구와 맥락을 같이 한다. 최명식(2003)에 의하면 상담자의 역전이라는 것은 상담자 자기문제와 연결된다고 보았으며 이은진, 이문희(2015)의 연구에 있어서도 자기문제에 대한 이해 부족은 결국 내담자에게 역전이를 일으켜 상담효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결국 상담자는 자신의 발달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자기문제를 가지고 상담에 임했을 경우 내담자를 해하는 상담자가 될 수 있고 이러한 결과는 결국 상담자 자신에게 돌아올 수도 있는 것이다. 즉 상담자 개인변인으로서 자신의 발달과 가장 상관관계가 높은 역전이를 불러오는 자기문제를 관리하지 않는다면 지속적인 상담자 발달을 이루기는 어려운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따라서 역전이와 관련된 상담자 자기문제에 대한 후속연구가 좀 더 다양한 수준의 상담자를 대상으로 하여 깊이 있는 탐색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둘째, 마음 챙김의 경우도 자신의 문제에 대한 자각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적 제시의 맥락으로서 해석해볼 수 있을 것이다. 심지은, 윤호균(2008)은 상담자 교육에 있어서 마음 챙김 적용을 강조하였다. 즉 상담자 발달은 결국 열심히 자신을 성찰하고 자각하며 자신이 누구인가를 먼저 알아야 내담자의 문제를 상담자 스스로와 분리한 후 바라볼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최근 마음 챙김과 관련한 후속연구(김준혜, 안현의, 2013)들이 꾸준히 진행되고 있는 것은 필연적인 결과일 것이다. 이에 상담자 자기문제에 대한 발달 단계상 특성의 연구는 상담자만의 특성을 알아볼 수 있는 연구일 것이다.

마지막으로 상담자 발달과 관련하여 상담자들의 교육에 대한 요구와 학습은 이후 상담 성과에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상담자들의 교육적 측면, 교육 분석, 정신분석, 슈퍼비전과 같은 상담자들이 받는 교육은 상담 성과의 질을 달리한다고 한 방기연(2006)의 연구 결과를 지지한다. 또한 상담성과에 대한 기대가 상담자들의 발달과 관계가 컸음을 보여주었다. 이는 상담자들의 상담성과에 대한 기대는 곧 자신의 성장, 발달에 영향을 주며 이는 긍정적인 상담 효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즉 상담에 대한 기대가 낮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상담자를 직업 상담자로 만들면서 더 이상의 발달을 촉진 시키지 못하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도 있는 것이다. 따라서 상담성과에 대한 기대가 상담자 발달과 상관관계 크기가 높게 나왔다는 것은 상담자 스스로 끊임 없이 발달을 위해 노력하고 성찰함으로써 내담자에게 좀 더 나은 치료조건을 제공하고 있음을 스스로 믿는 상담자 자신에 대한 신뢰와 자신감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상담성과에 관하여 상담자들 스스로 성공과 실패를 이야기하는 어려움이 존재하기 때문에 상담성과는 곧 상담자로서의 성장의 한 단면에 대한 증거이다. 또한 성과를 언급할 수 있다는 것은 과거 자신의 상담과 현재 자신의 상담을 비교할 수 있을 만큼 관점의 변화를 인지하고 있다는 것으로 알 수 있다. 이에 상담성과의 정의와 탐색은 쉽지 않으며 이에 대한 심도 깊은 질적 탐구가 필요한 영역인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따라서 상담자 발달에 있어서 내·외적인 교육과 일종의 자기문제를 바라보는 힘을 키우는 교육은 이후 상담학이 전문성을 확고히 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단계 중 하나인 것을 시사한다. 더불어 상담자 발달은 성장이라는 한 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상담 분야에 전반적인 영향을 미치며 상담 효과성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상담자 개인의 성장과 발달을 위한 내·외적 발달은 앞으로도 꾸준히

지속되어야 하는 상담학의 중요한 연구 분야인 것이다.

본 연구는 1990년대 초반 김계현(1992)의 슈퍼비전과 상담자 발달 관련 발표 이후, 상담자의 발달 단계에 관심을 기울이며 행해졌던 국내의 논문들 중 학술지 게재논문을 중심으로 상담자 발달과 관련한 연구들의 경향 및 동향을 분석하였다. 더불어 양적인 연구에서 메타분석이 가능한 논문들을 선정하여 이차적으로 메타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통하여 1998년부터 2015년 약 20년 가까이 되는 기간 동안 이루어진 상담자 발달과 관련한 연구들의 주제와 더불어 상담 대상, 상담자 경력 등과 관련 요인들을 정리하고, 추후 상담자 발달에 관련한 연구들의 방향을 제시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국내에서 발간된 학술지 연구만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추후 연구에 있어서 국외 연구나 학위 논문을 포함한다면 다양한 결과들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사례 수 부족으로 인하여 소실된 정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는 연구물이 더 축적된 이후 연구가 다시 이루어진다면 흥미로운 결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각 연구자들마다 상담자 발달단계 명칭의 조작적 정의가 달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석 실시 각 연구자들의 조작적 개념을 존중하여 명칭을 통합하지 않았다. 즉 수준별, 경력별, 혹은 초심, 숙련, 전문가등 명칭의 혼재를 그대로 보고하였다. 이러한 용어들의 혼재는 앞으로 상담자 발달관련 연구 시 고려되어야 하는 점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 장진구 (2005). 단기상담 훈련프로그램이 상담자 발달수준에 미치는 효과. *상담학연구*, 6(4), 1087-1102.
- 권경인, 양정연 (2013). 상담학 분야의 질적 연구 동향분석(2000년~2012년). *상담학연구*, 14(6), 3871-3893.
- 권경인, 지희수, 강신호, 김미옥 (2012). 집단상담자 발달모형-전문성 발달의 단계, 주요 주제 및 특성을 중심으로. *인간윤리*, 33(1), 73-102.
- 김계현 (1992). 상담자 교육과 슈퍼비전. 제3회 학술세미나 자료. 제주상담심리연구회.
- 김계현, 문수정 (2000). 상담수퍼비전 교육내용 요구분석.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2(1), 1-18.
- 김계현, 이운주 (2002). 상담자의 사례개념화 수행 능력과 상담 경력간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4(2), 257-272.
- 김미경 (2008). 기독교상담자 전문발달과정에 대한 질적 분석. *신학논단*, 54, 11-56.
- 김민정, 조화진 (2015). 교육수준, 실무, 슈퍼비전 경험과 교육 분석 경험에 따른 상담자 발달 수준 비교연구. *상담학연구*, 16(3), 67-84.
- 김준혜, 안현의 (2013). 상담자 발달수준, 마음챙김 및 역전이 관리능력과의 관계. *인간윤리*, 34(20), 95-109.
- 김진숙 (2001). 상담자 발달 모형과 청소년상담자 발달연구의 필요성.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3(3), 19-37.
- 김춘경, 이수연, 이운주, 정종진, 최용용 (2010). 상담의 이론과 실제. 서울: 학지사.
- 김현령, 김창대 (2013). 집단상담자 경력에 따른 자기대화 차이 분석: 집단원의 대화 독점 문제 상황을 중심으로. *상담학연구*, 14(4), 2125-2141.
- 김현주, 이영애 (2007). 놀이치료자의 성인애착 및 상담자 발달 수준과 치료적 동맹의 관계. *한*

- 국놀이치료학회지, 10(4), 27-38.
- 나현미, 정남운 (2016). 상담자의 성인애착, 상담자 발달 수준 및 공감과 상담초기 내담자가 지각한 작업동맹 및 상담성과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8(2), 339-369.
- 류진혜 (1999). 상담자 교육을 위한 인지 기술 훈련 프로그램의 개발. 박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 문수정 (1998). 상담 슈퍼비전 교육내용 요구분석: 상담자의 경력 수준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 박희현, 김광웅 (2006). 아동상담자의 의욕상실에 대한 상담자 개인적 특성의 영향. 아동학회지, 27(3), 29-51.
- 방기연 (2006). 상담심리사의 슈퍼비전 경험에 대한 질적분석.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8(2), 233-254.
- 백미현, 유현실 (2012). 상담경력에 따른 상담자 발달수준과 소진의 관계 : 적응유연성의 조절 효과를 중심으로. 상담학연구, 13(6), 3191-3205.
- 손은정, 이해성 (2002). 상담자 발달 수준별 사례 개념화의 차이.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4(4), 829-843.
- 송은화, 정남운 (2005). 슈퍼비전 교육내용 요구도와 실태, 만족도 연구-숙련과정에 있는 상담자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7(2), 317-334.
- 신종임, 천성문, 이영순 (2004). 상담경력수준에 따른 개인상담 슈퍼비전 교육내용 요구, 실제 및 만족도 분석. 한국동서정신과학회지, 7(1), 83-101.
- 심지은, 윤호균 (2008). 상담자 교육에서의 마음챙김 적용.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3(2), 307-328.
- 심홍섭 (1998). 상담자 발달수준 평가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 심홍섭 (1999). 상담자 교육을 위한 슈퍼비전. 한양대학교 학생생활연구, 17, 87-117.
- 왕윤정, 서영석 (2015). 대학생이 인식하는 상담 받는 사람들에 대한 원형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7(4), 773-796.
- 우형진, 박지연 (2011). 국내 인터넷 연구의 발전적 모색 2005~ 2010년까지 커뮤니케이션 학술지에 게재된 인터넷 연구의 대한 메타분석. 커뮤니케이션 이론, 7(1), 26-71.
- 이명우 (2013). 사례개념화 집단교육의 효과분석. 예술심리치료연구, 9(3), 113-131.
- 이윤주 (2001). 상담사례개념화 요소목록 개발 및 슈퍼비전에서 중요하게 지각되는 사례개념화 요소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3(1), 79-93.
- 이은진, 이문희 (2015). 초심상담자의 자기문제 이해 및 극복과정. 상담학연구, 16(3), 1-24.
- 이재창 (1996). 전문상담자 교육과 훈련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8(1), 1-26.
- 이홍숙, 주수현, 김효정 (2011). 인턴 상담원의 상담자 발달에서의 결정적 사건 경험.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3(4), 833-859.
- 임고운, 김지현 (2008). 상담자 발달수준 및 역전이 활용과 상담성과. 상담학연구, 9(3), 987-1006.
- 장안덕, 이영순, 천성문 (2009). 상담자 교육을 위한 유식학적 집단상담 교육프로그램의 개발과 효과. 韓國教育論壇, 18(1), 239-263.
- 전정미, 유미숙 (2012). 놀이치료의 사례개념화 내용분석. 한국놀이치료학회지, 15(4), 435-458.
- 최명식 (2003). 계산 강수균 교수 회갑 기념호: 역전이와 상담자의 자기 문제. 동서정신과학, 6(2), 197-214.

- 최한나 (2005). 상담자 발달 연구의 동향과 과제. *상담학연구*, 6(3), 713-727.
- 최혜윤, 정남운 (2003). 상담자의 완벽주의 성향, 사회적 지지와 심리적 소진.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8(2), 279-300.
- 현영섭 (2014). 성인 자기 주도학습 측정도구의 신뢰도와 타당도 메타연구: 국내 학술지 게재 논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학연구*, 20(1), 33-62.
- 황성동 (2014). 알기 쉬운 메타분석의 이해. 서울: 학지사.
- Al-Darmaki, F. R. (2004). Counselor training, anxiety, and counseling self-efficacy: Implications for training psychology students from the United Arab Emirates University. *Social Behavior and Personality: an international journal*, 32(5), 429-439.
- Bauer, K. D., Liou, D., & Sokolik, C. A. (2015). Nutrition counseling and education skill development. Nelson Education.
- Cohen, J. (1977). *Statistical Power Analysis for the Behavioral Sciences*. New York: Academic Press.
- Corey, G. (1990). *Group counseling*. Brooks/Cole Publishing Company.
- Duncan, B. L., & Reese, R. J. (2016). Using PCOMS technology to improve outcomes and accelerate counselor development. *Using Technology to Enhance Clinical Supervision*, 135.
- Fulton, C. L. (2016). Mindfulness, Self-Compassion, and Counselor Characteristics and Session Variables. *Journal of Mental Health Counseling*, 38(4), 360-374.
- Furr, S. R., & Carroll, J. J. (2003). Critical incidents in student counselor development. *Journal of Counseling & Development*, 81(4), 483-489.
- Goodman-Scott, E., Carlisle, R., Clark, M., & Burgess, M. (2016). "A Powerful Tool": A Phenomenological Study of School Counselors' Experiences with Social Stories. *Professional School Counseling*.
- Howard, E. E., Inman, A. G., & Altman, A. N. (2006). Critical incidents among novice counselor trainees. *Counselor Education and Supervision*, 46(2), 88-102.
- Ieva, K. P., Ohrt, J. H., Swank, J. M., & Young, T. (2009). The impact of experiential groups on master students' counselor and personal development: A qualitative investigation. *The Journal for Specialists in Group Work*, 34(4), 351-368.
- Konstam, V., Cook, A., Tomek, S., Mahdavi, E., Gracia, R., & Bayne, A. H. (2015). Evidence-Based Practice, Work Engagement and Professional Expertise of Counselors. *The Professional Counselor*, 5(1), 67.
- Lane, D. A. (2016). Counselling Psychology in Organisations: From Problem Fixing to Emergence and Growth. *The Handbook of Counselling Psychology*.
- Lechowicz, J. S., & Gazda, G. M. (1975). *Group counseling instruction: Objectives established by experts*. Counselor Education and Supervision.
- Lent, R. W., Hill, C. E., & Hoffman, M. A. (2003).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Counselor Activity Self-Efficacy Scale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0(1), 97.
- Levitt, D. H., & Jacques, J. D. (2005). Promoting tolerance for ambiguity in counselor training programs. *The Journal of Humanistic Counseling*, 44(1), 46.
- Luther, A. E., & Barnes, P. (2015). Development and Sustainability of ePortfolios in Counselor

- Education: An Applied Retrospective. *International Journal of ePortfolio*, 5(1), 25-37.
- Merriman, J. (2015). Enhancing counselor supervision through compassion fatigue education. *Journal of Counseling & Development*, 93(3), 370-378.
- Morrisette, P. J., & Gadbois, S. (2006). Ethical consideration of counselor education teaching strategies. *Counseling and Values*, 50(2), 131.
- Moss, J. M., Gibson, D. M., & Dollarhide, C. T. (2014). Professional identity development: A grounded theory of transformational tasks of counselors. *Journal of Counseling & Development*, 92(1), 3-12.
- Orlinsky, D. E., Rønnestad, M. H. (2015). Psychotherapists Growing Older: A Study of Senior Practitioners.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71(11), 1128-1138.
- Paolucci, E. O., Genuis, M. L., & Violato, C. (2001). A meta-analysis of the published research on the effects of child sexual abuse. *The Journal of psychology*, 135(1), 17-36.
- Rønnestad, M. H., & Skovholt, T. M. (1992). Themes in therapist and counselor development. *Journal of Counseling and Development*, 70, 505-515.
- Rønnestad, M. H., & Skovholt, T. M. (2003). The journey of the counselor and therapist: Research findings and perspectives on professional development. *Journal of career development*, 30(1), 5-44.
- Scher, M. (1981). Men in hiding: A challenge for the counselor. *The Personnel and Guidance Journal*, 60(4), 199-202.
- Scott T. Meier, & Susan R. Davis (1998). 상담의 기본 요소[*The elements of counseling*]. (노안영 역). 서울: 중앙적성출판사(원전은 1997에 출판).
- Skovholt, T. M., & Rønnestad, M. H. (1995). *The evolving professional self: Stages and themes in therapist and counselor development*. John Wiley & Sons.
- Smith, A., & Koltz, R. L. (2015). Supervision of School Counseling Students: A Focus on Personal Growth, Wellness, and Development. *Journal of School Counseling*, 13(2), n2.
- Thomas, G. (2006). Facilitator education: Learning from group counselor education. *Group Facilitation*, 3(7), 3-12.
- Urofsky, R. I. (2013). The council for accreditation of counseling and related educational programs: promoting quality in counselor education. *Journal of Counseling & Development*, 91(1), 6-14.
- Weatherford, P. C., Brooks, D., & Allred, L. B. (2016). Keeping up with the Times: Improving the Modern Counselor through Professional Identity Development, Technological Policy, and Positive Risk Taking.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logy*, 1(1), 2.
- Woodside, M., Oberman, A. H., Cole, K. G., & Carruth, E. K. (2007). Learning to be a counselor: A prepracticum point of view. *Counselor Education and Supervision*, 47(1), 14-28.

원고 접수일 : 2016. 10. 15.
수정원고 접수일 : 2016. 12. 09.
게재 결정일 : 2016. 12. 18.

The Research Trend and Correlation Meta Analysis on the Counselor Development and Related Factors

Moon-Joo Cheong

Hanik Jo

Hanyang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comprehensively and systematically the research trend and correlation effect sizes related with the counselor development by using meta-analysis. The chosen 56 studies on counselor development researches focusing on published papers in domestic until may in 2016 were analyzed, and 11 studies among the chosen 56 studies were used by meta- analysis. The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in the study related with the counselor development, both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studies have increased continuously. Second, when classifying according to object of study, the studies related individual counselors development are more than those of group counselors. Third, the general themes of the study related with the counselor development were counselor development stage properties, the development stage properties of supervisee according to the guidance of the experienced supervisor, the development stages properties of novice supervisor. The next, in the meta analysis result of counselor development, the correlation effect size on the variables related to the counselor development was in order understanding in cases, noticing, counseling plan, human communication skills, human attitude. Finally, based on this counselor's developmental research analyzes trends, the implications of research and the proposition of follow-up studies were discussed.

Key words : counselor development, trend analysis, meta- analysis